



즉시 사용

비고	* 국무총리 모두말씀 별도배포	
담당	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	과장 노혜원, 사무관 신용현 (044-200-2056, 2058)
	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	과장 정동혁, 사무관 조진배 (044-200-2239, 2242)
	국토교통부 서울세종고속도로팀	팀장 조현준, 사무관 민인홍 (044-201-4130, 4131)

서울~세종 고속도로, 도공사업으로 전환하여 1년 6개월 조기완공

- ▶ 당초 2025년 12월 완공예정을 1년 6개월 단축하여 2024년 6월까지 완공
- ▶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민자제안 수준(공사비 10%) 재정지원
- ▶ 민자방식보다 낮은 통행료로 30년간 약 1조 8천억원의 국민부담 경감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27일(목) 오전,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약칭: '현안조정회의')를 주재하여, 「서울-세종 고속도로 도공사업 전환 추진계획」을 심의·확정하였다.

* 참석자 : 국무총리(주재), 교육부·과기정통부·법무부·행안부·복지부·국토부 장관, 기재부2·문체부1·산업부·고용부·해수부 차관 등 /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·제도개선비서관 / 국조실장, 국무1·2차장, 총리비서실장

□ 정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서울~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도공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당초 2025년 12월 완공예정이던 것을 1년 6개월 단축하여 2024년 6월까지 완공*하기로 하였다.

* 안성-구리 : '16년 착공, '22년 완공 / 세종-안성 : '19년 착공, '24년6월 완공

○ 이번 결정은 '국민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증진한다'는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원칙 하에 서울시와 세종시를 직접 연결하는 상징 노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.

□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공사비의 90%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, 정부는 민자제안 수준인 공사비 10%와 보상비만 부담한다.

□ 사업방식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.

○ 국민들께 30년간 약 1조 8천억원의 통행료 인하효과*가 돌아가는 등 고속도로 공공성이 강화되며

* 민자 약 9,250원(도공의 1.2배) → 도공 7,710원(현재 기준) : 연평균 592억원 경감

○ 사업의 조기완공을 통해 중부권 교통난을 완화하고, 교통분산효과를 통해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교통편익*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사업기간 단축(1년 6개월)에 따라 통행시간 단축, 운행비용 절감 등 6,700억원 규모의 사회적 편익 예상

○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, 장기적으로 통행료 수입 증가에 따라 명절 통행료 무료화 등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한 재정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※ 별첨 : 서울-세종 고속도로 도공사업 전환 추진계획